

高陽德水慈氏橋碑 小考

高 敬 姬

一、序 言

碑는 京畿道 高陽郡 神道邑 東山里 山二의 統一路 沿邊에 있다. 碑의 位置는 碑臺座가 畧케 묻혀 있는 것으로 보아 原來의 位置이다. 이 碑를 中心으로 그 주변에는 머리가 없어진 석불입상(朝鮮時代作, 現存高一〇五cm)과 『郡守嚴侯○○善德善政碑』(一二七cm×五四cm×二四cm)가 있으며 碑의 오른쪽에는 『方伯吳侯挺一清德恤民善政碑』①(一八〇cm×二四cm×八三cm, 順治十七年, 朝鮮 顯宗 一年, 一, 六六〇)가 있다.

이 碑는 前面과 後面이 陰刻된 兩面碑로서 前面에는 碑를 세우게된 來歷과 다리를 세운 功德을 기록하였고 뒷면에는 碑를 세우는 데 施主한 신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本稿에서는 이 碑의 앞면의 本문을 가능한데까지 判讀하여 이에對한 解釋을 하고 끝으로 여기에서 나타난 問題點을 쓰고자 한다. 아울러 碑의 建立年代가 朝鮮時代 顯宗 一年(一, 六六〇)이어서 이 碑는 三二四年前에 세워졌으나 碑가 濕한 곳에 있어 碑의 表面인 大理石이 한 겹 벗겨져서 全文總 一、一二〇字中 五〇字를 판독치 못했다.

이 碑文은 현재까지 發刊된 金石文資料集에 掲載안되었고 橋碑 自體가 例가 드문 것이기에 拙稿를 發表하였으므로 많은 是正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아울러 碑를 세울 때 施主한 신도들의 이름이 새겨진 뒷면도 判讀되어야 할 것이다.



圖 1. 全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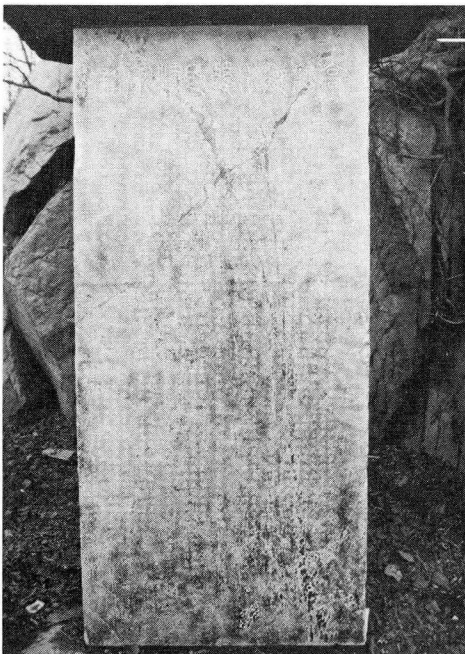


圖 2. 高陽德水慈氏橋碑

三 解 釋

교양관② 덕수③ 자씨④ 교비명명서

양자는 털하나를 뽑아서 친하를 이롭게 하지 않고⑤ 목자는 이마가 깨지는 것도 돌보지 않고 친하를 이롭게하니⑥ 두 도는 우리 유가(儒家)들이 배척하는 바이다. 그러나 만약 돌아오는 자가 있다면 군자는 거절하지 않는다. 거절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오 착함을 허락하는 것이다. 하물며 양자도 아니고 목자도 아니면서 그리고 그 공리가 친하에 이음을 존중, 또한 착한 사람이라고 부르기에 족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군자는 또한 그 착함을 허락하고 아름다운것을 칭찬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서리나 상인은 친하되 옛날사람이 말기고 제문을 짓는 것이 이것 때문이 아닌가, 그런즉 내가 이 글을 쓰는 것이 불만이 없을것 같은데 다른사람이 여기에 비난을 하겠는가, 더구나 설은덕사⑦는 나와 좋아하는 사람으로 비문을 지어달라고 요청한지가 두, 세번인즉 문장이 훌륭한 것으로서 거절하는 것이 또한 인정이 아니다. 파릉⑧에 불교신자가 있으니 성은 조씨요, 이름은 선남이다.⑨ 갈비추안⑩에 키는 훨씬 크고 기개를 좋아해서 少○○○하며, 팔로를 두루 다니며 물에 다리가 없음을 보면 반드시 사람전녀출 것을 생각하여 평생 힘쓰고 일찌기 하루도 잠시 쉬지 않았다. 내가 들으니 금포군⑪에 천등교와 금릉교⑫는 그가 놓은 것이다. 내가 들으니 안남부⑬에 계양교 천장교⑭는 그가 놓은 것이다. 대저 네 다리의 물은 호강으로 갈라지며 흑내(川)가 커서 거마가 건널수 없다. 네 다리의 길은 호해와 연결되고 도시와 시골에도 통하여 사람이 이다리로 경유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고 그 다리를 대단히 튼튼하고 크게 놓았으니 공리가 크다고 하지 않겠는가, 사람이 먼저 부지런히 하면 뒤에 안일하기 쉬워서 그 잘하다가도 뒤끝을 마무리하기 어렵거늘 조(趙)인즉 그렇지 않아 공이 높을수록 자기를 낮추며 업적이 많을수록 더욱 근면하고, 또 우왕왕관⑮의 신원에 덕명교를 세워 무릇 앞뒤에 세운

것이 이것이 다섯번째로 된 다리이다. 공은 높고 업적은 많아서 만사람들이 한결같이 칭찬하니 보통사람으로 본다면 이만하면 됐다고 끝낼 것이거늘 그런데 겸연히 스스로 만족하지 않고 돌아보면서 가로되 저 창릉⑯아래에 장안으로 가는 길이 있는데 덕수내에 아직도 정정한 돌다리⑰가 없으니 어찌 이 길의 큰 흠절이며 그리고 뜻 있는 사람의 마음 아파 할 일이 아니겠는가, 내가 교량에 손을 대지 않았으면 그만이지만 만일 다리를 논다고 하면 어찌 이 다리를 빼놓수 있겠는가, 而弗○○○○와 계획을 시작하니 이 해는 순치무술년(孝宗九年 一, 六五八)이다. 재력이 쉽게 모이고 기제가 정리하여 돌을 삼각산⑱에서 캐니 삼각산이 모두 빨갛게 벗어졌고 일꾼들은 날로 불어나서 어떤사람은 녹이고 쇠불리며 어떤사람은 돌을 쪼고 같기도 해서 한꺼번에 나가서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힘을 다하여 三년이 지난 경자년(顯宗 一年, 一, 六六〇) 여름에 다리가 완성되니 혹은 말하되 덕수넷물이 삼각산 중흥동에서 나오니 이 다리에서 중흥동까지 가기가 一〇리 못되고 못물이 합류하여 범람해서 짐을 실은 배가 침몰하는 근심이 없으니 이 다리는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이니 무엇이 대단하다고 하겠는가, 나는 말하기를 그렇지 않다. 다리라는 것은 건너기에 편리하고 길을 만드는 것이니 물의 작고 큰 것이 어찌 애기할 것이 되겠는가, 대개 이 다리는 동으로 서울까지 가기가 겨우 二〇리 밖에 안되고 앞에는 회릉⑲, 효릉⑲, 공릉⑲수릉⑲, 장릉⑲, 제릉⑲, 후릉⑲등 여러 능이 원근에 나열되어 있다. 임금이 행차함에 관리들이 전안⑳할때에 반드시 이 다리를 건너야하고 다만 날마다 서울로부터 용만㉑으로 지나가는 천 사람만 사람이 이곳에 끊이지 않을뿐만이 아니다. 또한 조그만 비가 오더라도 몹세 빠른 여울로 폭류하고 不合於○○○○하여 하루라도 이 다리가 없으면 안되어 한시내에 좋은 제도인데 성조(聖朝)에서 우연히 이 다리에 미치지 못한 것이다. 부지런히 힘을 다하여 왕정을 도와준 즉 오직 백성을 이롭게 할 뿐만 아니고 또한 정치하는 도에 도움이 있으니 옛날 제갈명㉒이 교량을 조선(條繕)하는 것과 더불어 똑같이 칭찬해도 좋을 것이고(비

록) 임금이 공으로 주는 상을 받는 총명(寵命)을 받아도 옳은 것이며, 선비들의 글과 글씨로써 그 공리를 널리 나타내도 옳은 것이다. 마음에 바라는 바가 없이 착한일을 한즉 착한 것이요 마음에 바라는 바가 있어서 착한일을 한 즉 착한 것이 아니니 그 마음속으로 계획하는 것이 길거영조(景祖)의 마음에 바라는 바가 없는데 그러했는가, 바라는 바가 있어서 그러했는가, 내가 들으니 신사(信士)는 불교를 믿는 사람이다. 이에 윤회(輪廻) 보응의 설에 혹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아니면 달리 구하는 바가 있는 것인가, 이것은 가히 알 수 없다. 그러나 그 요로에서 죽반승(尊)이 게을리(怠) 날을 보내는 것보다 현명하며, 그리고 사사로움을 쫓고 공을 등지는 자와 비유할 때는 대단히 먼 것이다. 공부자(孔夫子)는 관중을 누르고 그 공을 취하여 인으로서 허락했으니 내가 비록 도교나 불교를 좋아하지 않으나 홀로 공을 취할 수 없겠는가, 그런즉 이 다리에 사람을 건너게 해주는 공덕으로서 이 사람을 칭찬하여 가로되 선인이라고 하는 것이 또한 마땅하다. 또 그 무리가 심히 많으니 그 힘센자를 말한다면 장보(張保) 한, 지남(指南) 손심현(孫心顯) 이인(李仁) 등 一八인이 가장 다리에 공이 많다. 명(銘)에 가로되, 내가 장신을 보니 하늘이 공교한 마음을 주었다. 이미 돌을 잘 다스리고 또 쇠를 잘 녹이는 것을 검했다. 한품으로 두가지를 맡으니 성인도 오히려 어렵다. 공은 여섯다리를 이룩했으니 삼한에서 제일 높구나 완전한 것이 공중에 가로 질렸고 흰하게 들에 비추었다. 여와씨의 돌이 무엇에 필요하며 위주를 자랑하라. ○○鑄牛하고 鍾不陷馬하다. 우리에게 대덕을 내려서 백성이 전하기에 편리하다. 만약 그 공을 논한다면 마땅히 우임금 아래에 있도다. 부아(삼각산)가 솟돌과 같이 되었으니 이름이 동화에 남았도다.

순치십칠년 경자 칠월 일 세우다.

통훈대부 고양군주 심공의 때이다.

四. 結 語

이 碑는 朝鮮 顯宗一年(順治十七年, 一, 六六〇)에 세운 것이다. 碑의 크기는 碑身の 높이가 二三五cm, 너비가 一〇五, 五cm, 두께 三〇cm이다. 碑의 臺座는 方形이며, 碑에는 八作形의 屋蓋를 갖추고 있다. 碑는 前後面에 陰刻으로 前面에는 碑를 세우게 된 來歷과 그 功德을 쓰고 後面에는 碑를 세울 때 施主한 사람들의 이름을 썼다.

碑의 前面은 三二行이며, 各行은 五六字 內로 되어 있고 글자의 크기는 二×二cm이며 위에 쓴 碑題는 篆書로 되어 있으며 本文의 글씨는 階書로 韓石峯體이다.

碑의 前面의 總字數는 一, 一二〇이며 이 中 밝힐 수 없는 字가 四〇字이며 推察한 字가 一〇字이다. 그 中에도 本文만의 내용은 總九九字이며 이 中 밝힐 수 없는 字는 二九字이고 推察한 字는 一〇字이다. 이것은 前面에서 本文과 그 碑를 세우는 데 힘쓴 사람들의 이름을 밝힌 것과 區別한 것이다.

이 비는 趙善男이 善하여 물을 보고 다리가 없으면 이에 對한 불평함을 생각하여 스스로 善한 마음에서 우러나와 다리를 여섯개나 세운 것을 계기로 그 찬양비가 雪嶺安士에 의하여 세워진 것이다.

碑題에서 慈氏는 자비로운 사람 또는 불교신자를 稱한 것 같으며 姓과 는 무관한 것 같다. 碑는 佛者인 雪嶺安士가 세웠으며 文章은 누가 썼는지 밝히지 않고 있지 않으나 內容으로 볼 때 格調 높은 선비가 쓴 듯하다. 아울러 이 碑文에서 사람의 형상을 표현하는데 曷鼻醜顏(납작한 빈대코에 앞장구)이라고 한 것은 매우 재미있고 직선적인 표현이다.

碑에 보이는 김포군의 天登橋와 金陵橋, 안남부(현재의 부평)에 있는 桂陽橋와 天藏橋, 遇王郡의 新院에 있는 德明橋, 德水川에 있는 慈氏橋가 모두 趙善男의 功積이라 하니 朝鮮時代에 다리의 설치가 國家에서 만든 것以外에 國民의 마음에서 스스로 이루게 된 것이 있음을 알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현재까지 調査된 橋碑에 대한 것을 보면 橐駝橋碑、羽化橋碑、百川橋重砌碑(一)、百川橋重砌碑(二)等 四基가 있다. 이 中 橐駝橋碑는 書體만 나와 있어 그 내용을 알 수 없으나 다른 碑에서 살펴보면 다리를 國家에서 놓은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앞으로 橋碑들에 對한 자료를 계속 수집하여 이를 比較 研究하여 보면 朝鮮社會史의 한 面인 橋梁에 對한 것이 밝혀질 것이다.

끝으로 이 碑文이 아직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부족함을 무릎 쓰고 발표하게 된 것이므로 이에 대한 너그러운 이해와 시정이 있으시기를 바라며 도움을 주신 선생님께 감사 드린다.

〔註〕

① 朝鮮 光海君二年(一,六一〇)에서 顯宗十一年(一,六七〇)까지의 文臣으로 字는 斗元, 號는 龜沙, 本貫은 同福으로 觀察使 端의 아들이다. 一六三五年에 李珣, 成渾의 文廟從祀를 反對하고 退官하여 一,六三九年 謁聖文科에 丙科로, 一,六四六年 文科重試에 丙科로 擧제하여 一,六五〇年 承旨가 되었다. 一,六五七年 吏曹參判에서 大司憲이 되고 一,六五九年 경기도 관찰사를 역임하고 顯宗十一年(一,六六〇)에 都承旨로서 孝宗實錄의 編纂에 參與한 (韓國人名辭典 P. 481).

② 朝鮮 太祖三年(一,三九四) 甲戌에 高峰監務를 두고 幸州, 富原, 荒調를 屈했다. 太宗十三年(一,四二二) 癸巳에 高峰, 德陽兩縣名을 取하여 高陽으로 고치고 縣監을 둘. 成宗二年(一,四七一) 辛卯에 敬·昌·二陵이 있다고 하여 郡으로 升格시켰. 燕山君 十年(一,五〇四) 甲子에 本郡을 廢하고 그 땅을 비워서 遊幸의 處所를 만들고 남은 땅은 갈라서 傍邑에 부침·中宗元年(一,五〇六) 丙寅에 다시 郡으로 됨. 高宗三年(一,八九四)에 郡이 되어 漢城府의 管轄로 됨. (韓國地名沿革考 P. 41)

③ 德水縣·京畿道 豐德 東三〇里에 있다. 본래 高句麗 德勿縣(二云, 仁物)인데 新羅 景德王이 德水로 하였다. 그후 高麗 顯宗九年(一,〇一八)에 開城府屬縣이 되었다가 文宗十六年(一,〇六二)에 開城府에 直隸하였다. 恭讓王元年(一,三八九)에 監務를 두고 朝鮮 太祖七年(一,三八二)에 監務를 省하고 豐德으로 屬하였다. (韓國地名沿革考 P. 88)

④ 慈氏란 姓도 있지만 여기서는 佛者를 稱하거나 자비로운 사람을 뜻하여 다 리 이름에 붙인 것이다. 또한 高麗圖經에 보면(P. 113) 王城內外諸寺中에 彌陀, 慈氏 두 절이 있다고 되어 있어 전 이름으로 쓰기도 했다.

⑤ 楊子·楊朱, 戰國時代人, 字子居, 後於墨子與墨子弟子禽滑釐辨論, 其說謂古

之人損一毫·利天下不與也·悉天下奉一身不取也·人人不損一毫·人人不利天下, 天下治矣, 其說戰國時盛行, 時人目爲爲我, 與墨子之兼愛相反, 孟子斥爲異端, 辭而闕之(中國人名大辭典 P. 1283)

⑥ 墨者·墨翟, 戰國時代 魯人, 仕宋爲大夫生於周定王時安平末卒, 年八十餘, 倡兼愛尙同之說, 流行頗盛, 當時與儒家並稱, 孟子稱其摩頂放踵利天下爲之, 國策載其百舍重繭以救宗國事, 蓋操行堅卓而專以利濟爲主者也, 然孟子斥爲無父, 力闢其說故其學不傳於世, 有墨者十五卷, 其門人所記也, 中國人名大辭典 P. 1285

⑦ 밝히지 못했음.

⑧ 밝히지 못했음.

⑨ 이 다리를 만든 주인공이나 자세한 기록을 찾을 수 없음.

⑩ 史記 蔡澤傳에 나오며 謂如蝸之鼻와 額前出也의 뜻이므로 빈대코에 알짱구

⑪ 京畿道에 있으며 본래 高句麗의 黔浦縣인데 新羅 景德王이 金浦로 고쳐서 長堤(富平)郡 領縣이 되었다니 高麗 顯宗九年(一,〇一八)에 仍屬하고 後에 樹州로 들어왔다가 明宗二年(一,一七二)에 監務를 移고 두고 神宗元年(一,一九八)에 御胎를 縣地에 藏하고 升格하여 縣令官이 되고 朝鮮 太祖朝에 富平으로 들어 왔다가 곧 別개로 됨. 太宗十四年(一,六一四)에 陽川을 省略하고 金浦縣으로 합하여 金陽縣이라 하였다가 未幾에 陽川으로서 衿川(果川)에 합하고 金浦縣을 富平에 합하였다가 同一六年에 다시 각각 縣이 되어 令을 두었고 仁祖十一年(一,六三三)에 다시 郡으로 升格되었다. (韓國地名沿革考 P. 60~61)

⑫ 輿地圖書(上, P. 105) 金浦郡의 橋梁條에 보면 이 다리는 안나오고 折斤橋, 玉橋, 臥橋並板橋, 掘浦橋, 羅津橋並紅橋가 보인다. 다만 玉橋 옆에 天登峴이 있으며 郡名에 金陵이 있다.

⑬ 高麗 毅宗時 富平에 安南都護府를 두었다. (輿地圖書 上, P. 69)

⑭ 富平의 橋梁條에 보면 大橋在府東十里三間, 歧灘橋在府東三十四里一六間이 있고 山川에 桂陽山在府北二里鎮山 名安南山自仁川蘇來山西落而爲邑主山遇早霽雨于此가 보이고 있다.

⑮ 新增東國輿地勝覽 高陽郡條 P. 197에 보면 達乙省, 高峯, 幸州, 皆伯, 遇王, 王逢, 德陽郡이 있다.

⑯ 朝鮮 第八代 睿宗(一, 四六八~一, 四六九, 欽文聖武懿仁昭孝大王)과 睿宗 繼妃(仁惠昭徽齊淑安順王后韓氏)의 陵으로 高陽郡 神道邑 龍頭里에 있다. (璿源綱要 P. 21)

⑰ 涎涎之石梁은 긴 돌다리의 뜻으로 韓愈答張徹詩에 『石梁平涎涎 沙水光冷』으로 되어 있다.

⑱ 都城 卞正北에 있으며 一名 華山이라 하고 新羅때는 負兒岳이라 함. (世

宗實錄地理志 p. 19)

①9 禧陵으로 西三陵에 있으며 中宗繼妃(宣昭懿淑章敬王后尹氏)의 陵이다.

②0 西三陵에 있는 仁宗(獻文懿武章肅欽孝大王)과 仁宗妃(孝順恭懿仁聖王后朴氏)의 陵.

②1 坡州郡 條里面 奉日川里에 있는 睿宗妃(徽仁昭德章順王后韓氏)의 陵.

②2 坡州郡 條里面 奉日川里에 있는 成宗妃(徽懿慎肅恭惠王后韓氏)의 陵.

②3 坡州郡 炭縣面 葛峴에 있는 仁祖(開天肇運正紀宣德憲文烈武明肅純孝大王)와 仁祖妃(正裕明德貞順仁烈王后韓氏)의 陵.

②4 京畿道 開豐郡 上道面 楓川里에 있는 太祖后(仁順聖神懿高皇后韓氏)의 陵

②5 京畿道 開豐郡 興教面 興數里에 있는 定宗(懿文莊武溫仁順孝大王)과 妃(順德溫明莊懿定安王后金氏)의 陵.

②6 展拜로 옮겨 맞아 머리를 땅에 숙이고 절함.

②7 平安北道 義州의 옛 이름.

②8 中國 三國時代 蜀人(A, D, 一八一~二三四), 字는 孔明으로 陽의 隆中에 隱居하여 自身을 管中과 樂毅와 比較함. 劉備를 도와 吳와 聯合하여 曹操를 赤壁에서 擊破하고 巴蜀을 얻어 蜀漢國을 세우고 劉備가 죽은 뒤 先王의 遺詔를 받들어 後主를 도움. 뒤에 五丈原에서 司馬懿와 對戰中 病으로 陣中에 서 죽음.

②9 임금이 남달리 사랑하여 내리는 명령.

③0 拮据는 열심히 일하는 것이며 營造는 토목, 건축 따위의 일을 경영하는 것

이므로, 열심히 다리를 만들기 위하여 일하는 사람을 말함.

③1 죽과 밤만 많이 먹는 무능한 중.

③2 용 또는 뱀등이 굶를거리며 나아가는 모양.

③3 歸美山 상암석의 이름으로 南康記에 보면 歸美山의 산돌이 붉어 비단에 수 놓은 것처럼 빛나고 높고 높은 것이 하늘을 따르는 것 같은 것이 여와석이라

고 함.

③4 朝鮮時代 文官의 正三品 堂下官의 官階.

③5 碑文에서 傍點이 있는 字는 推察한 것임.



圖 3. 前面의 一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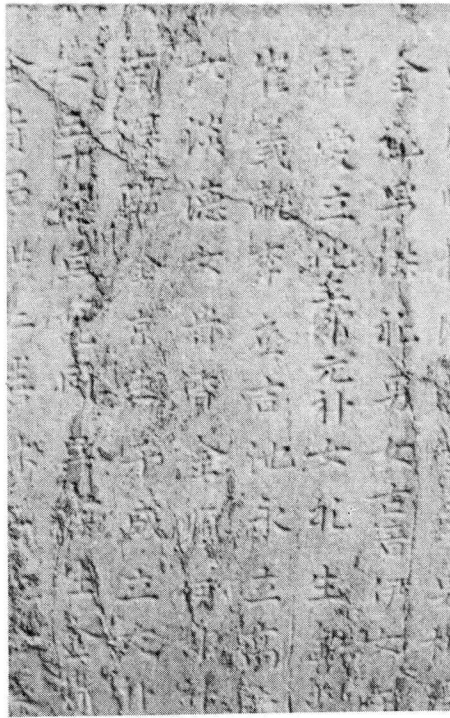


圖 4. 後面의 一部